

🔇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Q



뉴스홈 | **최신기사** 

## 독일, 헬멧 5천개 지원에 우크라이나 "다음은 베개냐" 냉소

송고시간 | 2022-01-27 15:59













전명훈 기자 기자페이지



우크라이나에서 2021년 진행된 나토 동맹군 훈련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러시아와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독일이 '방탄 헬멧 5천개'를 지원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비탈리 클리츠코 시장은 독일 빌트지와의 26일(현지시간) 인 터뷰에서 "독일 정부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지금 농담하나"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독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무장한 러시아군과 맞서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러시아 는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올 수 있다"며 "이 다음엔 어쩔 건가. 베개라도 보낼 건가"라고 쏴붙였다.



클리츠코 시장은 세계복싱평의회(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이며, 한때 독일에 수년간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주재 안드리 맬니크 우크라이나 대사는 로이터통신에 "(독 일 정부의) 상징적인 제스처는 환영한다"며 일단 의례적으로 사 의를 표했다.

그러나 "수십만 병력의 장비 보급이 시급한데, 방탄 헬멧은 가장 긴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독일 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 드러나 반갑긴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방어용 무기"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독일 소셜미디어에 서도 이번 헬멧 지원을 두고 비아냥이 쏟아졌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된 흔적"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특히 2019년 독일 정부의 '자전거 헬멧쓰기 캠페인' 슬로건인 "쓰레기(s\*\*t) 같아 보여도 생명을 구해줍니다"라는 문구 와 광고 이미지를 활용해 정부의 헬멧 지원을 조롱하는 인터넷 밈(meme·인터넷에서 패러디나 재창작의 소재로 유행 하는 이미지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당시 독일 교통부가 추진한 자전거 헬멧쓰기 캠페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반나체 남녀를 등장시킨 데다, 비속어까지 그대로 활용해 전방위 비판을 받았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독일에 대공 방위 시스템 등 무기 공급을 요구해왔으나 이날 독일은 우크라이 나에 방탄모 5천 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우크라이나 편이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은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거나, 적극적으로 우 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럽 일부 동맹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id@yna.co.kr

관련기사

러 2월 침공설 속 서방 '우크라 방어력 높인다' 지원 박차 동맹국 불만 직면 독일, 우크라에 군용헬멧 5천개 공급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7 15:59 송고

#우크라이나 #독일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34 찰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0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